불안의 시대 지식인의 분노:

魯迅의 경우

김창규*

【요약】

중국의 타락상에 분노한 노신은 낡고 병든 중국의 전통과 중국인들에 대해 비판의 붓끝을 모은다. 암흑과 절망을 느낀 노신이었지만, 중국의 모든 낡은 것은 꼭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노신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의 죽음과 아까운 희생에 고통스러워 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았다. 절망을 버리고 분노하며 전사의 길을 걸었다. 노신은 잡문이라는 새로운 문체를 전투에 편리한 무기로 사용했다. 그는 국민당 정부의 정치문화와 전제주의, 복종과 아첨에 능한 지식인, 기회주의적인 청년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노신의 적은 사방에서 다가왔지만, 그는 위대한 증오를 유지해 가면서 외로운 전투를 벌였다. 노신에게는 중국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한 계기로서 마르크스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민족의 상위자는 아니었다. 노신이 유일하게 지키고자 것은 인류의 자유와 평등, 독립과 존엄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문학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노신은 죽어가면서도 목에 걸린 가시를 뱉어내듯 글을 썼다. 그래야만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중국 민중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사른 노신의 뜨거운 애정과 분노는 오늘 이 땅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살아 있는 호소로 다가오고 있다.

【주제어】 불안의 시대, 노신, 절망, 분노, 희망, 인간애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교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08-361-A00006)로서, 2011년 11월 11일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 내용을 수정·심화한 것이다. 발표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양세욱 교수님의 지적이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드린다.

Ⅰ. 머릿말

신해혁명을 새로운 중국의 탄생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였던 중국인들은 점차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여러 방면에 걸친 당국의 무력함과 원세개(袁世凱)의 제제운동 및 공교국교화운동 등으로 절정에 달한 중화민국 초기의 복고적 분위기는 지식인들에게 절망과 함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중국의 현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이 각성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변혁만이 아닌 의식적인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문화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진리 탐구와 신지식 추구의 열정을 불어넣는 등 거대한 사상 해방의 흐름을 형성했다.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이 중국역사에 이루어 놓은 한 가지 근본적인 전환은 국가와 군주의 권위적 지위가 개인으로 대체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가 이택후(李澤厚)의 표현처럼 啓蒙과 救亡이 오랜 동안 평행선을 긋지 못한 채 구망이 계몽을 압도해버렸다.[1] 5・4의 물결이 퇴조하면서 지식인들은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문화운동 혹은 5・4정신의 훼절이었다.

1927년 남경국민정부가 출범한 후 당국과 영수가 새로운 권위를 가지면서 모든 개인에게 복종을 강요했다. 권력과 지도자는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누렸다. 정객, 관료, 군벌, 자산계급, 지식인 등은 너나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였으며, 게다가 일본의 침략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웠다.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위협받는 불안의 시대였고, 또한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의 시대였다. 민족의 안위가

1) 이택후, 김형종 역, 「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 『중국현대 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불안했고 중국인의 생명이 불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정부는 더 포악해지고 부패해졌으며, 이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에게는 재갈을 물렸다. 남경정부는 언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30년 출판법을 공포하여 출판물이 반드시 국민당 당국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국국민당과 삼민주의를 파괴하려거나 남경정부를 전복하거나 중화민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출판을 금했다. 심사과정에서 검사관들은 마음대로 원고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했고 삭제된 부분은 공백으로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2)]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식인은 '憂以天下, 樂以天下'를 소명으로 삼고, 천하와 자기의 일신을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했다. 그들은 학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사회와 국가에 몸소 구현하려는 수기치인적 경향이 강했다. 특히 국가 위난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때문에 그들은 세인의 존경을 받았고 여론 주도계층으로 위치했다. 근대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편전쟁 후 계속된 반제・반봉건운동 과정에서 늘 역사의 전면에 서왔다. 신해혁명 후에도 지식인들은 국가의 통일을 이루어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면서도 강대한 신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들은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의 주체세력이었고, 1920~30년대에도 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다. 대도시의 언론・학술・예술 등 지적 분야에서 종사한 지식인들의 활동이 특히 그러했다.[3)]

노신(1881~1936)은 바로 불안의 시대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그의 위치는 손문(孫文)과 모택동(毛澤東)을 매개하는 관계에 있다. 근대 중국이 그 자체의 전통에서 자기 변혁을 행하기 위해서 노신이라는 부정적 매개자를 거치는

---

2) 일부 통계에 따르면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출판이 금지된 것은 문예창작 458종, 사회과학 676종이나 되었으며, 1936년 11월부터 37년 6월까지 1년도 못된 기간에 금지된 잡지가 131종에 달하였다(『中國現代出版史料』(丙編) (中華書局, 1956), 144).

3) 李雲漢, 「抗戰前中國知識份子的救國運動」, 『知識份子與中國』(時報出版公司,1980), 387.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새로운 가치가 밖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를 갱신함으로써 생겨나는 과정에는 어떤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 희생을 한 몸에 짊어졌던 이가 바로 노신이었다. 노신이야말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했고 조금의 아첨도 하지 않았다.[4] 구추백(瞿秋白)은 이러한 노신의 정신을 첫째 깨어 있는 현실주의, 둘째 끈질긴 전투정신, 셋째 반자유주의, 넷째 허위에 대한 반대라고 요약한 바 있다.[5]

문학을 하는 노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조국인 중국과 민족의 어둡고 혼란한 운명이었으며, 그는 이 시대적 사명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6] 그래서 그는 전사가 되었다. 중국이 앓고 있던 병의 근원은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것인데, 이것은 오랜 역사 동안에 형성된 것이기에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문화 모두는 상전을 섬겨온 문화이며 많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한 주범이었다. 따라서 낡은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중국 사람이 영원히 상전을 섬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마련해주는 일일 뿐이었다.[7] 때문에 그는 전통, 허위, 정부, 관리, 청년, 노인, 동료, 후배들과 싸웠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현실에 노신은 분노하고 저항했으며, 사회에 반역하고 모든 계급과 집단에 반역했다. 그는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한 펜으로 그자들의 총에 맞섰다. 그 따위 백색공포는 소용없고 때가 지나면 정지될 것으로 믿었다.[8] 암흑의 주력에 대하여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화살

---

4)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역,『루신』(문학과 지성사, 2003), 184.

5) 서광덕,「투창을 치켜든 고독한 전사 루신」,『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동녘, 2006), 213.

6) 원형갑,「문예사상에 있어서 전통과 모험」,『한성어문학』4 (1985), 17.

7) 노신문학회 편역,『노신선집』3(여강출판사, 2003), 439. 먼저 밝히건대, 본 연구에서 참고한『선집』은 번역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필자는 인용문 대부분과 본문 기술에서『루신』,『무덤』(홍석표 역, 선학사, 2003),『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유세종 역, 도서출판 창, 1995),『노신의 마지막 10년』(김태성 역, 한얼미디어, 2004) 등과 비교해 본 후 인용하였다. 다만, 원문이 동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선집』으로 인용 표시한다.

한 개도 쏘지 않으며 그저 약자에 대하여만 자꾸 씨불거린다면, 아무리 의로운 기색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살인자의 공모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9]

노신의 적은 정부와 관리들로부터,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노인과 청년들로부터 사방에서 다가와 그를 짓눌렀다. 적이 정면에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상층과 배후와 내부로부터 다가왔고, 주변에서부터 좁혀왔기 때문에 다분히 포위적 성격을 띠었다. 노신은 불안했고 절망하였지만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 그물을 뚫는 방법을 준비하였고 줄기차게 저항했다. 그런 탓에 그의 투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반역과 반항 그리고 포위선 돌파의 성격이 농후했다.[10]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봉건적 억압이라는 두 겹의 굴레를 안고 있던 중국 민중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사른 노신의 뜨거운 애정과 분노는, 분명 때와 장소를 뛰어 넘는 참다운 지성으로서 오늘 이 땅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살아 있는 호소로 다가오고 있다. 노신을 주제로 삼은 이유다.

노신의 명망에 걸맞게 그동안 연구자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기류, 평전류, 전집 등을 내놓았다.[11] 또한 노신의 삶과 사상, 작품 분석, 문학사적 의의 등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왔다. 역사적・사상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1926년을 전후로 한 노신의 반정부 활동과 그 영향,[12] 노신의 계몽사상에 대한 평가,[13] 문학 작품에 나타난 노신의 사상을 읽어보려

8) 유세종 편역, 「총과 붓의 대결」,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 (도서출판 창, 1995), 170. 이하 동서는 『청년』이라 약칭함.

9) 「진리재 부인의 일을 논함」, 『선집』 3, 505.

10) 「칼은 개혁의 무기」, 『청년』, 40-41.

11) 때문에 그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고, 이하 서술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12) 윤혜영, 「국민혁명기 북경에서의 노신-방황에서 전사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2000).

13) 조경란, 「루신의 전략적 개인주의」, 『현대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2008).

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14]

본고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먼저 생애 전반에 걸친 노신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전사로서의 노신을 그려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신의 외롭고도 끝이 없는 투쟁과 그 의지를 읽어보려 한다. 격동과 불안의 시대에 살면서 분노한 노신의 불굴의 의지와 투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추적해봄으로써 노신이 오늘날의 지식인들에게 남긴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음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절망적 현실 인식과 분노

중국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노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망 그 자체였다. 그 인식의 일단은 "외국에서는 화약으로 탄환을 만들어 적을 막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으로 폭죽을 만들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 외국에서는 나침반으로 항해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으로 묏자리를 잡는다. 외국에서는 아편으로 병을 치료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을 밥 삼아 먹는다"라는 언급에 잘 나타난다.[15] 또한 그는 세계에서 제일 변화가 없는 것이 중국의

14) 허벽, 「노신연구」, 『중소연구』 제2권 1호 (1977); 원형갑, 「문예사상에 있어서의 전통과 모험」, 『한성어문학』 제4권 (1985); 한병곤, 「노신에게 있어서의 문학과 혁명」, 『중어중문학』 제11집 (1989); 김용운, 「노신 인도주의 연구」, 『석당논총』 제16집 (1990); 유세종, 「초기 노신의 참회의식과 근대의식」, 『중어중문학』 제16집 (1994); 강경구, 「세 명의 광인-욱달부, 노신, 심종문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28집 (1996); 김소현, 「노신 시의식에 나타난 전통의 의미와 근대성」, 『석당논총』 제23집 (1996); 박운석, 「중국 신문학의 노신과 호적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제29집 (1997); 이주노, 「노신과 근대사상」, 『중어중문학』 제32집 (2003); 김명희, 「노신에게 있어서 글쓰기의 의미」, 『중국학보』 제47집 (2003); 이상옥, 「니체와 근대 중국의 사상-왕국유와 노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제15집 (2009).

15) 「전기의 이해」, 『선집』 3, 308.

글이고, 제일 오래된 것이 중국의 상투적인 곡조이며, 제일 낡은 것이 중국의 사상이라고 비관했다.[16] 나약하고 무능한 중국인에 대한 노신의 절망적 인식은 일본 유학시절의 경험에서부터이다. 『외침』의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느 때였던가? 나는 돌연 화면에서 오랜만에 많은 중국인들을 보게 되었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묶여 있고,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넋이 빠진 듯 멍청한 표정들이었다. 해설에 따르면 묶여 있는 중국인은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놈이며, 둘러선 사람들은 이 본보기가 되는 큰일을 구경하러 온 무리였다.[17]

노신은 환등기의 화면에서 동포의 비참함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자신도 보았다. 굴욕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굴욕이었다. 동포를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동포를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신을 연민하는 것이다.[18] 그는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잘 것 없는 본보기의 재료나 관객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그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이라 생각하고 문예운동을 제창하기로 마음먹었다.

신해혁명 후 노신은 남경의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장래는 아주 밝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다. 뒤이어 반동국면이 출현하자 그는 희망을 접고 절망했다. 혁명은 주인을 배척하는 것이어서 쉽게 실현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의 혁명은 국민들의 나쁜 근성을 개혁하는 것이었으니 다들 그만 도리질을 하고 말았다고 낙담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성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성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전제제도

16) 「상투적인 곡조는 이미 끝났다」, 『선집』 4, 431-432.
17) 「외침 서문」, 『선집』 1, 20-21.
18) 『루신』, 73.

나 공화제도를 막론하고 아무리 간판을 바꾼다 해도 바탕이 옛 그대로이니 다 헛일이 될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다.[19]

중국의 타락상에 대한 노신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1918년 경 중국의 지적 상태를 매독에 비유하기에 이르렀다. 노신은 육신의 부패가 체질화되어 혈관 속의 검고 불순한 피가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시키려 했다.[20] 그는 몸이 아무리 성하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회술레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의 의식을 변혁하는 길로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개변하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느꼈다. 책상을 하나 옮겨놓거나 난로를 하나를 바꾸려 해도 거의 피를 흘리다시피 해야 하고, 설령 피를 흘렸다 해도 꼭 옮겨놓을 수 있거나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은 굵직한 채찍이 등에 내려지기 전에는 스스로 움직일 엄두도 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1] 그래서 그는 채찍을 들었다.

국민성 개혁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낡고 병든 중국의 전통과 중국인들에 대해 비판의 붓끝을 모았다. 노신은 중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람의 값을 가져 본 적이 없는 기껏해야 노예에 불과하고, 노예보다 못했던 시기는 비일비재하다는 비관적 인식을 한다. 그리고는 자유・평등 기타 모든 부르주아 도덕의 수입에 대해서 저항했다. 여기서 저항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들을 권위로 삼아 밖에서부터 억누르는 것에 대해 저항했다는 의미이다. 기반이 없는 사회에서 새로운 도덕은 전근대적으로 변형되어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제자를 이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저항했고 철저하게 봉건제와 그것에서 생겨난 허위를 증오했다.[22]

---

19) 「새로운 역군을 구함」, 『청년』, 34-35.

20) 조너선 D. 스펜서, 장영무 역, 『천안문』(이산, 2010), 150.

21) 「노라는 집을 나간 후 어떻게 되었는가」, 『선집』 2, 48.

22) 『루신』, 181.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능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천대할 수 있으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먹히면서도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있다고 중국사회를 조롱했다. 그는 중국의 문명이란 부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인육의 연회에 불과하며, 중국이란 이 인육의 연희를 마련하는 주방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크고 작은 무수한 인육의 연회가 문명이 있은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베풀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연회장에서 남을 먹고 자신도 먹혔으며, 여인과 어린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비참한 약자들의 외침을 살인자들의 어리석고 무자비한 환호로써 뒤덮어 버렸다고 개탄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육의 연회가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베풀어나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23]

『아큐정전(阿Q正傳)』의 주인공 아큐는 환등기를 통해 보았던 구경꾼들, 즉 당하고 있는 이를 무표정하게 보고만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양분 삼아 살아가는 중국인이 곧 아큐였다. 노예라는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반항할 줄 모르는 아큐는 오히려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약자를 무시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인이라는 강자의 위치로 올라서서 자기 밑에 있는 노예를 압박하리라고 상상하는 노예, 곧 중국인들이다.[24] 『공을기(孔乙己)』에서는 서로를 속이기 위해 학문을 파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위선적 도덕군자로 규정했고, 『약(藥)』에서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혁명가들을 청조의 끄나풀에게 팔아넘기는 중국인을 고발했다.

노신은 권력자나 외국인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중국인을 물에 빠진 개라 하면서, 물에 빠진 개라고 해서 때리지 못한다는 법이 없으며 그럴수록 더 때릴 것을 주문한다. 그놈이 물에 빠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23) 「등하만필」, 『선집』 2, 111-112; 『무덤』, 229,

24) 조경란, 『현대 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2008), 101.

잘못을 뉘우쳤을 것이니, 다시는 사람을 물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오판이라 질타했다. 오히려 그는 이 개를 물에 처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두들겨 패라고 주문한다.

> 발바리는 개이지만 고양이를 닮아 절충적이고, 공정하고, 조화롭고, 공정한 모습을 물씬 풍기며 다른 것은 다 극단적인데, 오직 자기만이 중용의 도(中庸之道)를 깨달은 듯한 얼굴을 유유히 드러낸다. 이 때문에 부자, 환관, 마님, 아씨들로부터 총애를 받아 그 종자가 오래오래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놈이 하는 일이란 영리해 보이는 외모 덕에 귀인들로부터 비호를 받는 것이거나 중국이나 외국이나 여인들이 길거리를 나설 때 가는 쇠사슬로 목이 매여 발꿈치를 졸졸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런 놈은 먼저 때려 물에 처넣고 다시 계속해서 때려야 하며 저절로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때려도 무방하다.[25]

신해혁명 후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멋대로 기어 올라와 사람을 물어뜯게 되었다는 풍자이다. 혁명으로 타도했어야할 대상들이 민국 초기에 숨죽여 있다가 이후 불시에 뛰어나와 원세개와 함께 혁명가들을 수없이 물어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날로 암흑 속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청조의 늙은 유신은 말할 것 없거니와 젊은 유신들까지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마음 착한 선열들이 요귀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그것들을 번식케 한 탓으로, 그 후에 수많은 청년들이 암흑의 세력에 반항하기 위해 더욱 많은 기력과 생명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노신은 가슴아파 했다.

노신은 중국의 고유한 정신문명은 공화제에 의하여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전보다 좀 다르다면 만주인이 물러갔을 뿐이라고 판단했다.[26] 따라서 국민성 개혁이 절실하였고 전통과 봉건예교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자(孔子)는 중국에서 권세가들이 받들어 모신 것이고, 그 권세가나 권세가

25)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선집』 2, 125-127; 『무덤』, 365-366.
26) 「등하만필」, 『선집』 2, 110.

로 되려는 자들의 성인이지 일반 민중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방책을 고안했으나 그것은 죄다 민중을 다스리는 자, 즉 권세가들을 위하여 고안한 것일 뿐 민중을 위하여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27]

때문에 그는 썩어빠진 예교와 죽은 언어를 강요함으로써 현재를 모멸하는 자 모두를 도살자로 간주했다. 그리고 현재를 죽이면 후손들의 시대인 미래도 죽이는 일이라고 걱정했다.[28] 그리하여 필묵으로 뿌리 깊은 구 문명을 동요시켜 장래에 대해 아주 작은 희망을 주고자 분노했다. 그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상투적인 곡조를 집어치워버리는 일이었다. 낡은 글이나 낡은 사상은 현 사회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는 소수레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소수레를 탈 수 없는 노릇이고, 요순 때에는 음식을 진흙 그릇에 담아서 먹었지만 지금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29] 그래서 그는 늙고 낡은 것은 차라리 죽여 버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30]

중국의 각성한 사람들이 어린이를 해방하려면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노신은 강조한다. 즉 인습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암흑의 갑문을 열어주어 그들을 넓고 광명한 곳으로 내보내 행복하게 살게 하며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31] 그에게 있어서 시골 사람들이 뇌봉탑을 파가서 탑이 무너진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날마다 중화민국의 초석을 파가는 노복들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폐허 위에서 옛날의 것들을 주어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에는 혁신적인 파괴가 필요했다.[32]

---

27) 「현대 중국에서의 공부자」, 『선집』 4, 215-219.
28) 「현대의 도살자」, 『선집』 2, 177.
29) 「상투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다」, 『선집』 4, 436.
30) 「새로운 역군을 구함, 『선집』 4, 431.
31)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선집』 2, 34.

노신은 중국의 수많은 개혁에서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당해내지 못한 까닭은, 새로운 세력의 요구가 너무 작아 쉽게 만족해 버렸고 이를 널리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혁은 반드시 전면적인 개혁이어야 하며 눈앞의 일시적인 안정과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고, 중국이란 중국 인민 대중이지 결코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통치자를 불신했고 반대했으며 인민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능사로 삼는 통치자에 대해선 더욱 그랬다.[33]

문학가로서 그는 문학이 혁명과 구국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했다. 군벌에 대해서 무력한 문학이 혁명에 대해서 유력할 리가 없으며, 적을 죽이지 못하는 문학이 아군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을 죽이지 않고서 아군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적에 무력한 것을 잊고서 아군에 유력하다고 일컫는 문학은 진정한 문학이 아닌, 허명의 수단이며 열사의 추도회를 장식하는 만장에 불과했다.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가가 필요하고, 혁명가가 쓴 것이라야만 그것이 진정한 혁명문학으로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은 주장이었다.[34]

그러나 중국에는 남을 따라 톨스토이를 무서운 설교자라고 말할 줄은 알면서도, 그리고 중국이 현재 먹장구름과 같은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부의 폭력과 재판 및 국가기관의 희극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톨스토이의 몇 분의 1의 용기도 없다고 그는 회의했다. 인도주의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풀 베듯 소리 없이 죽일 때에는 인도주의적인 항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35]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신의

32) 「다시 한 번 뇌봉탑이 무너진데 대하여」, 『선집』 2, 81.
33) 임현치, 김태성 역, 『노신의 마지막 10년』 (한얼미디어, 2004), 160-161.
34) 『루신』, 162.
35) 「취안 속의 몽롱」, 『선집』 2, 583.

절망적 인식과 분노의 감정은 다음에 잘 나타난다.

> 나는 중국인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원한과 분노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들은 강자에게 유린당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강자에 반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약자 쪽에 발산한다. 군대와 비적이 서로 싸우지 않고 총이 없는 맨손의 백성만이 군대와 비적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이들의 비겁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비겁한 인간은 설사 만 장 높이의 분노의 불길이 있다 해도 가냘픈 풀 이외에 무엇을 태워버릴 수 있겠는가?[36]

Ⅲ. 희망을 찾는 전사

암흑과 절망에 갇혀진 노신이었지만 중국의 모든 낡은 사물은 어쨌든 꼭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희망의 끈이 청년들이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있어 본 적 없는 제3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청년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청년들이 사람 잡아먹는 자들을 소탕하고 연회를 뒤엎어버리며 주방을 부셔버릴 것을 주문한다.[37]

그러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국외의 사조를 소개하며 세계의 명작을 번역하는 등 정신적 양식을 운수하는 항로는 거의 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만들어 내는 자들에게 막혀버렸다. 그들은 또 청년들의 귀를 막아 귀머거리로부터 벙어리로, 형편없는 말인(末人)으로 만들려 했다. 때문에 노신은 "상해 및 북경의 더러운 구더기떼들이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권력자들을 도와 청년들의 마음을 갉아먹음으로써 중국을 소리 없이 망하게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38]

---

36) 「잡다한 기억」, 『무덤』, 311.

37) 「燈下漫筆」, 『루신』, 144.

38) 「벗인가 원수인가」, 『청년』, 242.

노신은 사는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착한 의식과 인내의 부족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은 수시로 날카로운 질타로 나타났지만, 제자들의 죽음과 아까운 희생 앞에서는 깊은 슬픔에 잠겨 고통스러워했다. "숱한 청년들의 피가 켜켜이 쌓여 숨도 못 쉬게 나를 억눌러 이런 필묵으로나마 글을 쓰게 만드니, 진흙에 자그만 구멍을 뚫고 구차하게 목숨을 연맹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떤 세계일까. 밤은 한참 길고, 길도 한참 멀다."[39]

개혁에 뜻을 둔 중국의 청년들은 시체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청원을 하게 된다고 노신은 이해하였다. 죽음의 땅은 확실히 앞에 놓여 있지만, 중국을 위하여 청년들이 경솔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40] 더 나아가 그는 실탄에 맞아 쏟아지는 것은 청년들의 피로, 피는 먹으로 쓴 거짓말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으며, 먹으로 쓴 만가에 도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힘도 그것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외친다. 오히려 이 피 빚은 반드시 같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빚이란 오래 밀릴수록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41]

청년들에 대한 노신의 믿음은 애정의 언어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가차 없는 채찍으로 나타난다. 그는 청년이 범과 승냥이를 보기 위하여 적수공권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면 물론 머저리이지만, 범과 승냥이가 무섭다고 하여 동물원에도 감히 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42] 그리고 청년이라면 모름지기 불평이 있으면서도 비관하지 말라 하였다. 또 늘 항전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시덤불을 밟고 나가야 할 때는 물론 밟고 나가야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함부로 밟지 말라고 타일렀다. 전사의 생명을 몇이라도 더 보전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39) 『청년』, 337.
40) 「죽음의 땅」, 『선집』 2, 356.
41) 「꽃 없는 장미(2)」, 『선집』 2, 350.
42) 「번역에 관하여(상)」, 『선집』 3, 441.

청년들에게 "나를 딛고 오르라"고 외쳤다.

> 나는 사닥다리라고 한 말은 극히 지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도 심사숙고 해 보았습니다. 만일 젊은 후진들이 정말 사닥다리를 밟고 더 높이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야 밟힌들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사닥다리가 될 사람은 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43]

스스로가 기꺼이 사다리가 되고자 한 것도 청년들의 미래와 진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신은 또다시 절망했다. 일부 청년들이 과학이 싫으면 문학을 배우고, 글을 지을 줄 모르면 미술을 배우며, 그림을 그리기 싫으면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넥타이나 버젓이 매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등이 걱정거리였다.[44]

일부의 청년들은 노신에게 슬픔을 주고 상처를 남겼다. 어제는 전사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 딱 감고 양심을 버렸거나, 겨우 남은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으며, 언행까지 용렬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게 변해버렸다. 예컨대, 곽말약(郭沫若)은 "노신은 자본주의 이전의 하나의 봉건 잔당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혁명이었고 봉건잔당은 사회주의에 대해 이중의 반혁명이었다. 노신은 이중으로 반혁명적 인물이다. 그는 뜻을 얻지 못한 파시스트였다"라고 비난했다.[45] 노신은 그들과 같은 줄에 서기도 난감하고 그들과 싸우지도 못할 형편으로 결국은 진흙구덩이에 빠져든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소인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을 위해 사닥다리가 될 각오를 하였으나, 그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슬픈 감정을 표출한다.[46]

---

4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드림」, 『청년』, 78-79.
44) 「청년들의 의식의 협소함을 염려하며」, 『청년』, 87-88.
45) 『노신의 마지막 10년』, 60.
46) 「자유동맹좌익작가연맹」, 『청년』, 78-79.

상처를 입은 노신은 야수처럼 수풀 속에 들어가 혀로 핏자국을 핥아 없앨 뿐이고, 기껏해야 신음소리를 몇 마디 낼 뿐이라고 그의 감정을 거칠게 내뱉는다.[47]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았다. 절망을 버리고 분노하며 전사의 길을 걸었다. 양주・노자・안드레예프에서 묵자・공자・니체를 향해 길을 걸었다.[48]

노신은 자신을 포함한 문단에 전사가 없음을 보았다. 파리만 있을 뿐이었다. 전사는 손문과 그 외에 민국 원년을 전후로 순국하고도 오히려 노예들의 수모를 받았던 선열들을 가리킨다. 파리는 물론 그 노예들을 말한다.[49] "우리 혁명은 성공했다"라고 외치는 것은 전사의 시체를 빨아먹는 파리와 같은 행위라고 노신은 생각했다. 그는 중국에 수많은 전사들의 정신과 피로 길러낸 전에 없던 행복의 꽃과 열매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계속 자라나게 할 사람이 적거나, 꽃을 그냥 쳐다보거나 꺾거나 아니면 열매만 따려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50]

영원한 혁명을 자각하는 것만이 노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혁명으로, 손문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문학에서 영원한 혁명을 하고자 했다. 진정한 문학은 첫째 내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내용은 자기 것이어야 했다. 작가 본인에게는 성심과 용기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첫째는 본심에 속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의식적인 것이어야 했다. 곧 혁명의 여부는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으로, 혁명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혁명가가 있어야지 혁명문학은 그다지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작가가 혁명가가 되는 것이고, 이 혁명가가 어떤 소재를 이용하여 어떤 사건을 쓰든지 모두 혁명문학이었다.[51]

---

47) 「스승과의 제자간의 도」, 『청년』, 315.

48) 『루신』, 131.

49) 『루신』, 138-139.

50) 「황화절의 잡감」, 『선집』 2, 422.

손문에게서 영원한 혁명가를 본 노신은 영원한 혁명가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그렇다면 영원한 혁명가란 무엇인가? 곧 전통과 권위, 제도와 권력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모든 것, 달리 표현하면 전사의 피와 시체를 빨아먹는 파리에 맞서 싸우는 이를 의미한다. 노신은 모든 것에 맞서 싸웠다. 투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는 나팔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백병전도 하고 참호전도 하는 투사가 되었다. 그의 무기는 조소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냉소적인 촌철살인과도 같은 문장이었다. 쉼 없이 날아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의 글은 미사여구의 사치스러움과 만연체의 여유를 거부한다.[52] 희망을 찾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래서 그는 굳은 다짐을 했다.

> 용맹한 자는 분노하면 칼을 빼들어 더 강한 자에게 달려들며, 비겁한자는 분노하면 칼을 빼들어 더 약한 자에게 달려든다. 구원할 길 없는 민족 가운데는 꼭 아이들에게만 눈을 부라리는 영웅들이 수두룩하다. 이 비열한 무리들! (중략) 무엇(먹는 것, 이성, 나라, 민족, 인류 등)을 사랑하든지간에 오직 독사처럼 감겨들고 원귀처럼 집요하며 주야로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지쳤을 때는 잠간 쉬어도 무방하지만, 쉬고 나서는 다시 해야 하며 두 번, 세 번…계속해야 한다. 혈서・규약・청원・강의・울음・전보・회의・만사・연설・신경 쇠약은 죄다 소용없다.[53]

놀랍게도 그의 투쟁기간 동안 관방의 조치는 물론이고, ‘타락문인’, ‘일본 스파이’, ‘가소롭다’, ‘우상인 체 한다’, ‘매판적이다’는 등 문학 동인들의 음모와 이에 대한 민중의 참여가 이어졌다.[54] 때문에 그는 앞은 물론이거니와 뒤를 방어하기 위해 ‘모로 서기’를 해야만 했다. 가장 한심하고 맹랑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배후에서 날아오는 우군의 공격이었으며, 부상당한 뒤에 같은 진영 사람의 기쁨에 가득찬 웃음을 보는 일이었다. 창조사・태양사・신

51) 『노신의 마지막 10년』, 71.
52) 『청년』, 337.
53) 「잡감」, 『선집』 2, 228-229.
54) 『노신의 마지막 10년』, 10.

월사 성원들 대부분은 그를 비난했다. 그들 문인들은 파벌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자처하였으나, 작가나 교수들은 그 고상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신을 몇 마디씩 야유하곤 했다.

노신이 보기에 이런 중국의 지식인들은 인간의 탈을 쓴 개였고 노예였다. 지식인들이란 입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과 도리로 자신의 행위를 분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개인의 편의와 안일만을 돌볼 뿐이었다. 그들은 흰개미처럼 만나는 족족 죄다 생존의 밑천으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길에는 배설해낸 똥밖에 널려있지 않다고 노신은 비웃었다.[55]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신이 절망했을 때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한 노신이었지만 그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았다. 그는 전사였고 중국 사회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56] 노신은 비웃었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소했다. 그러자 그는 용맹한 전사가 되었다. 노신은 자신이 선택한 투쟁에 집착했다.

Ⅳ. 외로운 투쟁과 인간애

국민당 정부의 문화전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짐에 따라 노신은 원시적인 조반자의 용기와 현대 계몽전사의 지혜로 잡문이라는 새로운 문체를 창안하여 이를 전투에 편리한 무기로 사용했다. 당국이 그를 굶겨 죽이고야 말 작정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았다.[57] 당시 민족문제는 심각하게

55) 「인간의 탈을 쓴 개」, 『청년』, 245.

56) 작품을 발표할 권리마저 계속 박탈당하는 처지에서도 그의 글쓰기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비해 몇 배로 증가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게릴라 작가였다. 가장 주요한 방법은 필명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무려 140여 개의 필명을 사용했고,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80개 필명을 썼다(『노신의 마지막 10년』, 140).

57) 「문단과 출판계에 대한 탄압」, 『청년』, 175.

변질되어 결국엔 '하나의 주의, 하나의 정당, 하나의 영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하나'의 절정이었다.[58] 하나의 당이 정치권력을 완전한 장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라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국의 정치문화에 있어서 정부는 조직의 독점자였다. '하나'의 절정은 그의 펜 끝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노신은 국민당 정부의 정치문화와 전제주의에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공격했다. 1927년 이후 2~3년 동안 그는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깡패'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중국의 정치가들에게는 거론할 만한 어떤 원칙적 입장도 없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깡패들이 있는 이상 중국의 정치도 '깡패정치'일 수밖에 없었다.[59]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의 독재와 부패에 대해 노신은 좌시할 수 없었다. 1933년 5월 국민당 상해시당부는 "반동분자들의 기회를 틈탄 소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과 군대의 경비 하에 혁명정부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장학량(張學良)은 송자문(宋子文)과 장개석(蔣介石)에게 자가용 비행기를 선물하였다. 이에 노신은 "이전에는 회의를 대중의 의견에 좇아 공지에서 열었지만, 지금은 기회를 타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하므로 대표들에게 서한을 내어 양옥집에 모이게 하며 또 군경더러 질서를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반역 음모를 방지해야하므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며, 외국에 나갈 비행기를 벗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신랄한 조롱을 퍼부었다.[60]

노신은 동료이건 혹은 청년이건 그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호적(胡適) 등 신월파(新月派) 지식인들과의 한바탕 전투는 절정이었다. 당시 호적은 남경국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줄곧 약법제정이 민주정치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헌법 혹 약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당 독재의 이론적

58) 『노신의 마지막 10년』, 42-43.
59) 『노신의 마지막 10년』, 22.
60) 「다단한 날」, 『선집』 3, 355.

근거가 손문의 사상에 있다고 보고 손문에까지 비판을 확대했고, 여기에 나륭기(羅隆基)와 양실추(梁實秋) 등이 동조하면서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국민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개혁하여 사상과 언론의 자유 보장, 정치제도의 개혁, 당치의 중단과 민치의 시행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국민당은 손문의 유교를 받들어 실천하는 정당으로, 국민당이 손문의 유교를 독재의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손문 사상 및 저술에 나타난 착오를 지적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독재논리를 타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국민당을 반동으로까지 몰아세움으로써 국민당의 미움을 사『신월』은 폐간되고 말았다.[61]

신월파 주장이 몰고 온 풍파는 방관자 노신의 눈에는 그저 사람과 노예 사이에서 빚어진 오해에 지나지 않았고, 떠들썩하게 논쟁을 벌일 만한 가치가 없는 주제였다. 이는 중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여전히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래서 노신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놓는다.

> 그들은 경전을 인용하면서 당국에 대해 미묘한 주장을 폈지만, 당국을 불리하게 하려는 악의는 추호도 없었다. 단지 '어르신, 남들의 옷은 저렇게 깨끗한데 어르신의 옷은 더럽군요. 한 번 빨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어르신의 속마음은 헤아리지 못해 입에 말똥을 처넣는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국가는 한 목소리로 성토했고『신월』잡지도 재앙을 맞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다. 말똥을 뱉어내고 달콤한 것들로 입을 채우게 되었다. 어떤 이는 고문이 되었고 어떤 이는 교수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비서가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대학원장이 되었다. 신월도 이른바 문예를 위한 문예로 차 넘치게 되었다. 자기가 노복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군자들은 잘 생각해 보고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62]

노신이 보기에 이들은 정인군자(正人君子)인 채 하나, 아직 노예의 근성을

61) 졸고,「신월파 지식인의 손문 비판」,『전남사학』제16집 (2001), 101-141.
62)「언론자유의 한계」,『선집』3, 346.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주인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는 '쟁신(諍臣)'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권력자의 숨은 의도조차도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때문에 노신은 "비록 지금이 이전보다 광명하긴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뭔가 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훈수를 두었다. 이는 정부에게는 이성적 판단이 전무하다는 의미로서, 노예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것이다.[63]

1927년 가을 상해에 정착한 노신의 생활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가 참여한 자유대동맹에 대한 당국의 탄압(1930), 소설가 유석(柔石)에 대한 테러(1931) 등이 발생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피신을 거듭했다. 인도주의자에 대한 한 편의 희화적 일이 벌어졌다. 국민당에 의한 공산 청년들의 희생에 대해 노신은 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청년 공산당원들의 공격에 곧 포위되고 말았다. 그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뜻하지 않게 같은 진영 내부에서 공격해 왔다. 내부의 행위에 대해 그는 몹시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했다. 과거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정면으로 두 세력이 맞부딪치는 양상이었으나, 상해에서는 조직에 가입하고도 그 안에 내외의 구분이 있는 형세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64]

1930년 3월 노신은 좌익작가연맹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문학사・역문사 등의 개별문학 단체에 참가하거나 조직하기도 했다. 좌련은 선명하게 정치화・당파화되어 개별적으로 이탈한 소수 성원들을 제외하고는 분열과 공담, 인위적인 흥분 등 대규모 분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뿌리를 제대로 뽑아버리지 못한 까닭에 고질병이 재발했다. 노신은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마음은 잘못되어 있는 이른바 전우들이 가장 두려웠다. 그는 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단지 이들의

63) 『노신의 마지막 10년』, 90.
64) 『노신의 마지막 10년』, 20.

배후 공격에 방비하기 위해 '가로 서는' 수밖에 없었다.[65] 적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경계하는 일이 두렵다고 그는 토로한다.

>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가장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우군의 화살이네. 이런 공격에 상처를 입으면 같은 진영 안에서 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따라서 혹시 상처를 입게 되면 깊은 산림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상처를 핥아야 하지 절대로 남이 알게 해서는 안 되네.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네.[66]

노신은 등 뒤에서 쏘는 우군의 화살에 상처받고 힘들었으나 곧장 반격을 가하였다. 좌련 서기 주양(周揚)과의 한바탕 전투가 그것이다. 당시 좌련 내부에서 주양이 권력을 장악해나가자, 일군의 청년 지식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신의 눈에 주양 같은 인물은 지나친 과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과장을 일종의 관료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문단을 통일하여 문단의 황제가 되는 데에 있다면서, 이 무리들이 간악한 짓이란 짓은 다하고 문학계를 독점하여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노신의 눈에 이들은 오로지 날조・공갈・속임수로 그물을 던져 내막을 잘 모르는 문학청년들을 낚아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마련할 뿐 작품이라곤 없는 앵앵거리기에 능수, 곧 파리일 뿐이었다.[67]

몰래 쏘아대는 내부의 화살과 끊이지 않는 채찍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신은 위대한 증오를 유지해 가면서 외로운 전투를 벌였다. 그는 자신보다도 청년들이 입을 상처를 걱정하였다. 그는

---

65) 「양제운에게」, 『선집』 4, 656.
66) 「인간의 탈을 쓴 개」, 『청년』, 245.
67) 「병이 낫기만 하면 다시...」, 『청년』, 208.

청년들이 또다시 기만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만일 내가 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면 사자나 호랑이 또는 매에게 잡혀 먹힐지언정, 게으르고 지저분한 개에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68]

노신은 주양 등이 제창한 국방문학과도 싸웠다. 국방문학이란 1935년 8월 1일 중국공산당이 선언한 항일민족통일전선에 호응하여 그 슬로건에 부합되는 작품을 말한다. 주양・하연(夏衍) 등이 좌련을 해산하고 중국문예가협회를 결성하여 국방문학을 제창하자 노신은 불신을 품고 이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대신에 그는 '민족혁명운동의 대중문학'을 주장했다.

대개의 국가는 항상 민족의 집단적인 창상을 이용하여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자신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일쑤였다. 대체적으로 민족주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 선전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맹목적이고 선동적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노신은 민족주의가 국가행위와 결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줄곧 민족의 골격과 대들보를 보려면 하층 민중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69]

노신은 온갖 파벌의 문학가들을 항일의 구호 밑에 통일하자는 주장에 찬성하고 국방문학에는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혁명적인 체하면서 자칫하면 내부 간첩, 반혁명, 트로츠키파, 민족반역자라고 모함하는 자들로 태반이 정당한 인간이 아니며, 또 그들이 혁명적 대중의 이익을 무시하고 다만 혁명을 한다는 구실 밑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70] 노신은 통일전선 안에 "중국의 인민은 항상 자신의 피로 권력자의 손을 씻어 그를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위험성이 감춰져 있음을 간파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민들 외에 항전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68) 『노신의 마지막 10년』, 248.
69) 『노신의 마지막 10년』, 260-261.
70) 「서무용에게 화답하면서 항일통일전선 문제를 논함」, 『선집』 4, 349-352.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을 주장한 것이었다.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은 전체를 아우르는 구호이고, 국방문학・구망문학・항일문예 등은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이라는 구호 밑에 수시로 변하는 구체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노신은 여겼다. 따라서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은 결코 의용군의 전투 정형이나 학생들의 청원・시위 등등만 묘사하는 작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사회의 생활(각종 먹고 자는 것까지) 및 투쟁 의식을 묘사한 모든 문학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크고 다 같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민족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유일한 출로는 전국이 일치하여 일본에 대적하는 민족혁명전쟁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농민・학생・강도・창기・가난한 사람 및 부자 등 무슨 소재든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써내면 모두가 다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일 수 있었다.[71]

근대의 정부기구는 대중의 모든 것을 국가와 국기에 헌납하고, 항상 홉스봄이 말한 '전통의 발명' 혹은 '민족의 발명'에 의존하여 국가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군중이 외세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이라는 정부의 기치 아래 단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구망 속에서 계몽을 견지하고 상식의 보급과 혁명사상을 견지해야만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구망으로 시작하여 구망으로 끝나 모든 것이 구망을 위한 것이 되며, 그 결과는 정부를 구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신은 국가와 민족, 연합전선 등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정의를 시도했던 것이다.[72]

노신은 공산주의 혁명노선을 지지하였지만 볼셰비키일 수 없었다. 그에게는 중국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한 계기로서 마르크스주의가 필요했고, 그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민족의 상위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의 문학은 인간과

71) 「우리의 현 시기 문학운동에 대하여」, 『선집』 4, 382-383.
72) 『노신의 마지막 10년』, 274-275.

역사적 현실을 보는 눈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문학은 민족의 운명을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력일 따름이었다.[73]

이상에서와 같이 노신은 목에 걸린 가시를 뱉어내듯 글을 썼다. 그렇게 쓰다보면 또 남의 미움을 모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완곡하게 쓰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문장이 패기가 없게 될 것은 정해진 이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세가나 명사들을 건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실리지 못한다 해도 펜을 꺾지 않았다.[74] 죽기 나흘 전인 1936년 10월 15일, 임종의 문턱에서 그가 평생을 기대어온 펜의 힘으로 마지막 목숨마저 저항으로 연소시키는 전사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 유럽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종종 한 가지 의식을 거행하곤 한다. 남들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신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적과 원수가 너무나 많다. 신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내게 와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보았다. 나의 결정은 이렇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나를 미워하게 하라. 나 역시 죽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75]

Ⅴ. 맺음말

노신은 중국의 전진과 그가 사랑했던 젊은이, 고통 받는 민중에게 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한 외로운 전사였다. 예리한 견해와 격동의 2~30년대를 온몸으로 싸우다 간 전사로서의 투혼 때문에 노신은 오늘날 살아 있다. 노예적 국민성에 대한 노신의 비판은 노예 상태에 자족하고 있는 민중을 향한 고발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예성이 인민 대중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

73) 원형갑, 「문예사상에 있어서의 전통과 모험」, 28.

74) 『청년』, 165.

75) 「죽음」, 『선집』 4, 401.

아니라 지식인들에게도 존재했다. 그래서 노신의 싸움은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외롭게 투쟁했다.

주권과 통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받고 이용당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투쟁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혹시 이로 인해 자신이 고립되거나 심지어 공격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사의 운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위험의 가능성을 회피하지 않았다.

무엇이 노신으로 하여금 이토록 치열한 삶을 살게 하였을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족의 미래로, 노신은 중국의 전통으로부터 현재를 해방시키고 미래를 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했지만 볼셰비키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공산주의 이념도 넘어섰다. 결국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인간(중국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를 대륙의 대인으로 우뚝 서게 하였으리라. 그토록 전통을 부정했던 노신에게서 오히려 중국의 전통을 실감할 수 있다.

반지성주의와 몽매주의에 반대한 그는 지식인이 지식을 이용하여 권력과 결탁해 새로운 우매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했다. 계몽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유와 민주, 과학의 이념을 사회에 전달하고 강제 권력에 도전하고 전제정치에 반대했다. 대신에 대중을 교육시켜 낙후된 국민성을 개조함으로써 민족혼을 발양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노신이 확립한 지식인의 사명이었다.

노신이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간 것들은 매우 거대하고 무겁다. 불타는 것처럼 온갖 자극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과 각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다리로 힘껏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노신은 다음과 같이 일렀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개혁은 맨 처음에는 각성된 지식인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인들에게는 연구와 탐색, 결단과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이용하되 속임수가 없어야 하고, 지혜로운 인도가 있어야 하되 영합이 없어야 한다. 지식인은 자신을 경시하여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한 남들을 경시하여

자신의 졸개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인은 대중의 일원일 뿐이다. 나는 이런 지식인만이 대중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식인에게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유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상충될지라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식인은 비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비판이란 현재의 사회적 기원의 폭로를 뜻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되거나 간주되고 있는 권력, 착취, 억압의 구조와 그런 관계들의 사회적 기원을 폭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신은 날카롭고도 예리한 펜으로 이런 소임을 다하였다. 20세기에 죽은 노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참고문헌

강경구(1996),「세 명의 광인-욱달부, 노신, 심종문의 소설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 제28집.

김명희(2003),「노신에게 있어서 글쓰기의 의미」,『중국학보』 제47집.

김소현(1996),「노신 시의식에 나타난 전통의 의미와 근대성」,『석당논총』 제23집.

김용운(1990),「노신 인도주의 연구」,『석당논총』 제16집.

김창규(2001),「신월파 지식인의 손문 비판」,『전남사학』 제16집.

노신문학회 편역(2003),『노신선집』(1~4), 여강출판사.

다케우치 요시미 지음/서광덕 옮김(2003),『루신』, 문학과 지성사.

박운석(1997),「중국 신문학의 노신과 호적 비교연구」,『중국어문학』 제29집.

서광덕 외(2006),『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원형갑(1985),「문예사상에 있어서의 전통과 모험」,『한성어문학』 제4권.

유세종(1994),「초기 노신의 참회의식과 근대의식」,『중어중문학』 제16집.

유세종 편역(1995),『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 도서출판 창.

윤혜영(2000),「국민혁명기 북경에서의 노신-방황에서 전사로」,『중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이상옥(2009),「니체와 근대 중국의 사상-왕국유와 노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니체연구』 제15집.

李雲漢(1980),「抗戰前中國知識份子的救國運動」,『知識份子與中國』, 時報出版公司.

이주노(2003),「노신과 근대사상」,『중어중문학』 제32집.

이택후 저, 김형종 역(1992),「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중국현대 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임현치 저, 김태성 역(2004),『노신의 마지막 10년』, 한얼미디어.

조경란(2008),『현대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조너선 D. 스펜서, 장영무 역(2010),『천안문』, 이산.

한병곤(1989),「노신에게 있어서의 문학과 혁명」,『중어중문학』 제11집.

허벽(1977),「노신연구」,『중소연구』 제2권 1호.

홍석표 역(2003),『무덤』, 선학사, 2003.

【Abstract】

Lu Xun pointed a sharp criticism at outdated and ill Chinese tradition and the people with a big anger at corrupt China. But, in the dark and despaired times, he never gave up his hope that the obsolete custom would be destroyed in China. He saw a lot of youths dying with blood with his own eyes and suffered from their death and sacrifice. But, he could not stay in despair. He stepped into the way of a warrior with anger, instead. He used a new literary style called Lu Xun's essays as a comfortable weapon for his fight.

He fought against the political culture and despotism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submissive and flattering intellectuals, and opportunistic youths. Although surrounded by his enemies, he continued his fight with the great anger against them. For him, Marxism was required as a way to struggle with the Chinese fate. But, Marxism was never placed above the Chinese people. The only thing Lu Xun wanted to keep was liberty and equality, independence, and dignity of mankind.

In other words, his literature was all his love for human beings, ‘humanity’. He spitted up all his heart in writing even in front of his death. That was a way intellectuals must do. Lu Xun's strong love and anger enough to sacrifice everything he had including his life among the people in China still moves us in modern society in a vivid appeal.

【Keywords】 The age of anxiety, Lu Xun, Despair, Anger, Hope, Humanity.

논문 투고일: 2012. 03. 09
심사 완료일: 2012. 04. 06
게재 확정일: 2012. 04. 12